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96명 배정 '인력난 해소'

지난해 156명 보다 2배 이상 ↑ 올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등 초청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통해 농번기철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올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들도 함께 초청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필리핀 산마테오 계절근로자 17명이 1차로 입국해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마약검사를 받고, 인권보호·범죄예방 교육 후 농가에 배치됐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필리핀 지엠에이 계절근로자 24명이 2차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최대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지난해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숙소 점검 등을 통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 회로부터 농업 266명, 수산 130명 등 모두 396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입국한 근로자 15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올해부터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바쁜 영농철에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난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통해 농번기철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해남군 제공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고, 내년에도 고용주 재입국 추천을 통해

우리 군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근로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기자

방치된 빈집정비사업 추진 무안군, 1억2000만원 투입

무안군(군수 김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농촌지역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60동에 최대 200만원을 보조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 소유권 확인서류(건물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무안군 건축과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기자

강진 고향사랑기부 180명 돌파 100만원 이상 10명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가수 강진. 강진군 제공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1호 기부자인 재경강진군향우회 차용수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기부자 180명을 돌파했다.

지난 2일까지 10만원 기부가 88%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도 10명으로 많았다. 답례품은 강진사랑상품권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청자(17%), 잡곡(14%)순이었다.

강진=김운복기자

절화수국 생산 현장교육·컨설팅 강진군 신활력사업단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수출화훼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신활력 아카데미 마스터과정 '고품질 절화수국 생산을 위한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고품질 절화수국 생산을 위해 국내 전문가를 초빙해 절화수국 재배, 수확 후 관리, 스마트팜 시설환경관리, 수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수출화훼연구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화훼수출조직인 로즈피아를 방문해 수출 유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강진=김운복기자

전지훈련팀 이용 식당에 쌀지원 해남군, 해남쌀 등

해남군이 해남을 찾는 동계전지훈련팀 등 스포츠선수단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고품질 해남쌀을 지원한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원된 해남쌀은 선수들이 식사를 하며 추가로 요구하는 공기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0kg 기준 500포의 쌀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지훈련과 각종대회 선수단이 이용한 음식점이면 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체육대회나 동호회 등 스포츠 행사 참여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며 각종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해남군은 2022~2023년 동계기간 동안 전지훈련선수단 130여개팀, 연인원 4만명 유치를 계획으로 연인원 7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 훈련의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체류하게 되는 선수단은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겨울철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음식점지부 등과 협력해 위생, 친절서비스로 선수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펴오고 있다.

해남=전연수기자

초중고 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원 완도군, 상반기 중 지급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부터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은 완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 일을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입학생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입학 축하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1학년생에 1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신청 방법을 알리고 친권자, 후견인 등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돼 있는 학생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입생 축하금은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완도=최경철기자



해남군이 해남을 찾는 동계전지훈련팀 등 스포츠선수단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고품질 해남쌀을 지원한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인구 감소세 대응 민·관 함께 나섰다

진도군이 민·관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동참에 나섰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소상공인·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추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효과적인 시책 추진으로 긍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우홍섭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월말 정기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등 농어촌 활력 분야의 중점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내 사회단체도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진도군 재향군인회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인구 유입, 정주기반 마련, 보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의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기자

목포대, 호남권 유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선정

목포대학교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 대학 학부생 또는 민간·공공분야의 핵심 리더들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현장체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목포대는 서울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 4개교와 함께 오는 12월15일까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한다.

목포대는 이번 선도대학 사업에 '대학 학부생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이 선정

됐다. 목포대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진로교육 및 이론수업(사회적기업가의 정신 등)으로 구성된 융합 교육, 지역 사회적기업가 등과 멘토링 연결, 사회적기업 인턴십(직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기자

목포시, 유해 야생동물포획단 운영

목포시가 최근 인근 야산 등지에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도심에까지 출몰하고 있어 산 주변 경작자의

농작물 피해예방 조치 및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포획단은 8일부터 5일간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총포를 사용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기자